

## 산업의학 전공의 확보를 위하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 해 준

1985년 ILO의 권고안에 의하면 산업보건 사업은 예방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직장이 자주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과 직종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산업보건사업은 의사, 간호사, 위생사뿐만 아니라 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조직적

으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에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 근거아래 시행되고 있는 산업보건사업은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및 보건관리대행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 제 사업에서 의사는 책임자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산업의학 전문의를 적절히 양성 배출함은 산업보건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우 긴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금년은 대한산업의학회가 창립된 지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선배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1995년도에 산업의학 전문의제도가 인가되어 1996년도부터 금년도 2003년도까지 8회에 걸쳐 모두 451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었습니다. 이중 410명은 과거 산업의학 분야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배출된 전문의들이며, 41명은 4년간의 전공의 과정을 거쳐 양성된 전문의들입니다. 신설전문과목으로써 전문의 자격자가 450여명에 달한다는 것은 매우 빠른 전문 인력의 양적 팽창이라고도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학 전문의의 근무특성을 대한산업의학회지 2002년도 3호에 수록된 회원명부를 통하여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약 50%가 대학이나 연구소에, 약 25%가 산업보건사업기관에, 약 10%가 산업체 보건관

리자 또는 산업체의 부설의원에, 그리고 약 15%가 산업의학 전공과목과 무관한 개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산업보건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의 수는 전체 전문의의 35%에 지나지 않는 실정으로 산업보건사업기관 등 곳곳에서 산업의학 전문의를 확보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산업의학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원은 4년차 6명, 3년차 13명, 2년차 11명, 그리고 금년도에 1년차로 9명만이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공의 지원자가 격감하는 이유가 우리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오래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지만, 의약분업대란을 통하여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산업의학과, 그리고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가 인가되기 전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분야를 중추적으로 이끌어 왔던 예방의학과, 그리고 흉부외과, 결핵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등 10개 전문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은 최근 5년간 또는 올해의 전공의 평균 확보율이 50% 미만인 실정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년부터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에 근무하는 이들 10개 과목 전공의들부터 매달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앞으로 민간병원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 전문과목으로 산업의학과가 지정된 것은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되지만 대부분의 수련기관이 사립병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가시적인 전공의 유치효과는 적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단시안적 수련보조수당 지급책은 근본적인 인력 양성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정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안정적인 신분 보장과 함께 전문의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산업보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산업의학 전문의를 양성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소에 근무하는 선배 전문의들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시원이 추구하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목표가 일차진료의의 양성 및 배출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그 동안 예방의학과과목에서 교육되던 환경 및 산업의학 관련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부 학생들에게 산업의학 분야의 전망 제시는 물론 동기를 유발할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산업의학 분야를 적절히 소개하여 그들이 일생을 몸 바칠 정도의 관심과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